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2월 26일(금)
...(음력 1월 15일)...
Пятница
26 февраля 2021г.
№ 8 (1192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영예광장. 조국 수호자의 날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사할린의 공식 인사들의 헌화하는 모습.
(사진: 사할린주정부 제공)

사할린주,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조국 수호자의 날, 2월 23일 10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한 주·시 정부 관계자, 군사, 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영예 광장의 성화에 헌화했다. 이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전사한 용사들을 묵념으로 추모했다. 헌화식은 경례로 마감했다.

이날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여러 곳에서는 오락놀이와 릴레이 코스, 눈 인형 만들기, 미니축구시합과 공연 등이 개최되었고, 특히 가까운 시 문화공원에서 행사가 많이 열렸다. 주내 각 지방에서도 기념행사들이 펼쳐졌다고 전해졌다.

규정된 방역 제한 해제

주지사령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모임 인원수에 대한 규정을 해제했다. 2월 19일부터 요식업체들은 사람 간 간격 1.5미터를 유지하기 위한 탁자 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고, 한 탁자에 앉는 인원수 제한도 해제됐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항체가 생성되었고, 2만5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확진자 수도 매일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는 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과 합의에 따라 제한 지침을 폐한다. 주민들은 다시금 영화관, 극장, 카페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그러나 일반 급식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아직 입구에서 체온 측정, 마스크 및 손 소독에 대한 강한 지침이 유지된다. 3주 전 주지사령으로 사할린주의 음식점에 24시간 영업을 허용되었다. 이보다 앞서 사할린주 입도자들에게 요구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와 디지털 패스가 취소되었다.

사할린주, 극동지역에서 보건 디지털화의 선두에 서다

2020년 총결에 따르면 사할린주가 러시아 행정자치지역들 순위에서 10 위 안에 들었다.

사할린의 각 기관들 간의 디지털 표준화는 주지사의 주도로 확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종이문서에서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할린과 쿠릴의 보건 진료소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 간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는 진료 시 환자가 어떤 검진을 받고, 결과가 어떤지 의료시스템으로 즉시 볼 수 있게 된다. 전문의 진료는 전자 방식의 순번이 발급된다. 또한 화상진료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8건의 의료상담이 이뤄졌다. 주내 여러 지역의 환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전문의들과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한 사할린의 의료진들에게 화상진료는 러시아의 일류 병원들의 의료진들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돕고 있다.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번호 1-300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번호로 주민들이 진료 예약을 하고, 보건 기관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고, 방문기록을 남기고, 신속한 답변도 받을 수 있다. 1-300번을 통해 주민들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도 예약하고 있다.

"'코메타' 진료 이미지 자료 중앙 보관소에는 유일하게 디지털 영상 촬영으로 기록하는 방사선 센터가 있다. 그 덕분에 지역에서는 제때에 진료가 이뤄지고 이 센터의 전문의들은 2차 전문 소견을 제공한다. 이는 팬데믹의 여건 속에서 폐의 컴퓨터 단층 촬영을 1회 이상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은 더욱 특별했다."고 주 의료정보분석센터의 소장 겐나지 니키티니 설명했다.

디지털화는 교육, 공무, 도시 환경, 교통, 물류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7월1일까지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 개발되어 확립되어야 한다.

단신

사할린, '동계 스포츠의 날' 기념

2월 28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동계 스포츠의 날을 맞아 '트리움프' 바이에슬론 스키단지에서 기념한다. 이날은 2014년 소치에서 제 22회 세계 동계 올림픽과 11회 동계 패럴림픽이 열린 지 7주년 되는 날이다. 스키장에서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스키 세트를 무료로 대여하고, 즐거운 경기에 참가하여 상품도 받으며, 휴일을 활동적으로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주 로봇기술 선수권대회 개최

팬데믹의 상황으로 일련의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21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4회 사할린 로봇기술 선수권대회가 열린 가운데 10개 지방 교육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활동을 20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올해 행사는 방역 지침 준수로 대규모 개막식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수권대회 6개의 각 방면이 종료되면서 시상식에 수상 부문의 모든 참가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주 한인협회, 영주귀국에 관한 설명회 개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한국 외교부 주최로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사할린동포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올해 영주귀국사업이다.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에서 오는 27일(토) 오전 11시 2021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00명 이상의 학생들 '빅토리아' 축제 - 경연에 참가

2월 18일-20일까지 연례 '빅토리아' 애국적 노래와 낭독 축제-경연이 원격으로 열린 가운데 사할린주 -16개 지역에서 300여 명의 학생(7세-18세)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보낸 동영상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경연은 연령별로 3개 부문 - '보컬', '글 낭독', '연극 장르' - 로 나뉘어 경연이 펼쳐졌다.

사할린 지역에서 22,500명 이상의 주민들 백신 접종을 받아

2월 24일 기준 사할린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이고 39명은 퇴원했다. 이로써 사할린주의 총 확진자는 2만1천392명이고, 퇴원은 2만47명, 사망자 35명, 치료 중인 환자는 1천310명이다.

사할린주의 백신 접종자는 2만5천577명, 이 중 1만4천535명이 2차 접종 완료, 1만4천724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한 상태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을 위한 김춘자 국장의 역사적인 노력

지난 주말에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의 우리말방송국 김춘자 국장이 고회를 맞이했다. 김춘자 국장의 이름은 사할린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한민족 언론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할린 우리말방송(2004년 8월 15일 창립) 창립자로 사할린 역사에 기록할 만한 분이다. 한민족의 열과 맥을 전해주고 사할린 동포들의 귀와 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활동을 해왔다. 이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지난 2월 20일에는 김춘자 우리말방송국 국장이 사할린주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이날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와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방송 제작실을 찾아 김춘자 국장에게 축하했다. 이날 우리말방송국 사무실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도 직접 방문하여 김 국장을 따듯이 축하했다. 보좌관을 통해 게오르기 카를로브 국가두마 의원의 축하문도 전달되었고,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도 직접 축하하며 이외에도 수많은 축하와 연락이 들어왔다.

사할린 한인 2세인 김춘자 국장은 어릴 적에 집에서 우리말만 썼다고 한다. 조선 학교 5학년까지는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돼 있었고, 5학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1주일에 두 번 조선어 수업이 있다가 8학년이 되었을 때는 조선학교가 폐교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르쿠츠크 사범외국어대학 영어교육을 전공한 김춘자 국장은 한때 영어 교사로 활동했고 1982년에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신문사에 취직하여 부교정원, 교정원으로 근무했다. 오랫동안 러시아어만 쓰는 환경에서 지내다가 다시 모국어를 접하게 되었지만 김춘자 씨는 꾸준한 노력으로 빨리 성장해 좋은 언어 전문가가 되었다. 1986년부터는 그는 <사할린



>텔레라디오공사 소속 조선어 라디오방송국 기자로 활약해 나중에 이 방송국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0년부터 우리말티비방송국을 만들고 싶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때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5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한국의 가족과 이산되어 살아가는 사할린 한인들이 화면을 통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이 사할린-대구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다. 이

산가족의 화상 상봉은 본인들과 시청자들에게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이 방송을 계기로 김 국장은 우리말 티비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는 아직 러시아와 한국이 공식 수교를 맺지 않은 때였다. 14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그는 우리말 텔레방송을 만들어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

세계한민족 여성대회에 참가한 후 김춘자 국장은 사할린에서 한인 여성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 여성회장으로서 그는 그동안 한민족 문화, 언어, 풍습과 전통, 그리고 사할린 한인사를 널리 알리는 활동, 행사, 축제를 추진해 왔다.

김춘자 국장을 통해 한국 포럼이 코르사코브에 방향의 탐을 세웠고, 또한 그는 사할린동포 문제해결을 위해 사할린 한인대표로서 한국의 여러 주요 인사를 만나기도 했다. 김춘자 국장은 장기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었고 현재 민주평통 고문이다.

김춘자 국장은 언론인으로서, 러시아 동료 기자들 중에서는 물론 사할린 주요 언론인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있다.

새고려신문사는 다시 한번 김춘자 국장의 고회를 축하드리며 사할린 한인사에 기록된 김춘자 국장의 건승을 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사할린 동포사회 소식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2월의 활동

지난 1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종환)가 <가가린>레스토랑에서 음력설 잔치를 가졌다. 연회장에 60여 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시한인회에서 한민족 문화를 배우고 있는 민족무용팀, 사물놀이팀, 노래반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시한인회 측에 의하면 2월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음력설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병원에서 퇴원한 장애인 타치아나를 찾아가 선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2월 23일에는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시한인회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성들을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국제 모국어의 날 행사에 참가

2월 21일은 국제 모국어의 날이다. 유엔의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날은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에 기념하고 있는데 세계 각지의 모국어를 존중하는 뜻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100여 개의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할린주에도 이날 여러 행사들이 펼쳐진다. 특히 잊혀가는 북방소수민족의 언어 보존에 관한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올해 주 청년민족회(회장 실라초와 알랴나, 본명 박 알랴나)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사할린주 한인 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 회원들도 참가했다. 행사에는 타타르, 아르메니아, 부랴트 등 민족이 참가하여 모국어로 시와 노래를 부르며 민족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자기 민족문화를 소개하기 전에 각 민족들은 '안녕하세요.'를 민족어로 인사하고 뜻과 역사를 전했다. 이날 한인들을 대표해 최 율리아는 한국 노래를 불렀고, <하늘>사물놀이팀은 민족의 전통 가락을 선사했다. 행사는 사할린주 민족 창작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아리랑>무용단,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 무대에 서다

조국 수호자의 날 앞두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두 개 행사에 참가했다. 지난 19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사회복지센터에서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공연에 참가했고, 21일(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대강당 무대에 올라 몇 가지 무용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아리랑>무용단 단원들은 황혼 연령의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제22회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스키마라톤 사할린에서 개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사할린주 전 주지사를 추모하는 전통 국제 스키마라톤이 올해 22회를 맞는다. 사할린의 주요 겨울 행사 중 하나인 스키마라톤이 3월 6일에 조성될 예정이다. 마라톤 코스는 변동이 없으며 18세 이상의 사할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30-50km코스에서 자신의 실력을 겨뤄볼 수 있다. 출발은 코르사코프의 레스노예 마을에서 시작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벤스카야 5번가에 있는 스키단지가 결승점이 된다. 어린 스키 스포츠 애호가들을 위해 1km와 5km코스를 마련해 '베이비 마라톤'이 조성되는 가운데 올림픽 예비 동계 스포츠 종목 스포츠학교 스키장에서 진행된다.

레스노예에서 성인 스키마라톤은 11시에, '베이비'스키마라톤은 10시 30분에 시작한다.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올림픽 예비 동계스포츠 종목 스포츠학교 홍보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дут 22-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Традицио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состоится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в 22-й раз.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зимних стартов Сахалина состоится в этом году 6 марта.

Дистанции марафона остались без изменений.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рше 18 лет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на дистанциях 30 и 50 км. Стартовать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из села Лесн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финишировать — на лыжной баз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 улице Венской, 5.

Для юных любителей лыжного спорта предусмотрен "бэби-марафон" на 1 и 5 км. Старты пройдут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улица Венская, 5).

Старт взрослого марафона из Лесного состоится в 11:00, а "бэби-марафона" — в 10:30.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ат ценные призы и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사할린의 얼음> 축제의 최고상 상품은 스노모빌

'사할린의 얼음' 겨울 낚시 기념 축제가 돌린스크 지역 나이바 강에서 막을 내렸다. 축제에 얼음낚시 애호가들 237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나와가'를 잡았다. 이들은 사할린주를 비롯해 연해주, 하바롭스크, 마가단, 모스크바를 대표해 참가했다. 경기는 예전과 같이 2 단계로 열렸다. 첫 경기는 어획량을 두고 낚시꾼들이 팀을 이루어 낚시 경쟁을 했고, 이후 50명의 강자들이 낚시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자신의 힘과 속도를 한껏 발휘했다.

팀별 경기에서 '프로피쉬'팀이 나와가 약 13kg를 잡아 1위를 차지했다.

얼음 위를 더욱 뜨겁게 달군 것은 두 번째 단계로 여기서 '사할린의 얼음' 축제의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최종 결과 '아쿨리 포라드카(상어들은 정상적이야)'팀의 바체슬라브 아스타펜코가 가장 빠른 낚시꾼이 되어 바이애슬론 4 단계까지 1등으로 도달하고, 1등으로 어획 규정에 적합한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가 대상 상품인 스노우모빌을 차지하게 되었다. '낚시 바이애슬론'대회 여성 중에서는 정 마리가 1등을 했고, 장애인팀에서는 '에델바이스 -1'팀이 나와가 9.4kg를 잡아 우승했다. 과거에 우승한 팀별 '챔피언스 리그'경연에서는 '우다차(행운, 팀장 한 미하일)'팀이 우승했다. 한 미하일 팀장은 2013년 첫 '낚시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총 15개의 부문에서 시상식이 이뤄진 가운데 6부문

은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낚시 축제는 연방 수산청과 사할린주 정부, 지역 어로산업체연합회, 돌린스크시 행정부가 주최했다.

Главный пр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 снегоход

На реке Найбе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ился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ке снеголюбия и наваги приняли 237 команд, или около 1000 человек. Они представлял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 но и Приморье, Хабаровск, Магадан и Москву. Состяз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шли в два этапа — сперва рыболовы состязались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венстве за самый тяжелый улов, а после 50 сильнейших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силу и скорость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ильнейшей стала команда "Профиш" — им удалось извлечь из Найбы почти 13 килограммов наваги.

Наибольшего накала страсти на льду достигли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 здесь решалась судьба главного приза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амым быстрым и ловистым оказался Вячеслав Астапенко из команды "Акулы порядка" — он первым добрался до 4 этапа биатлона и первым сумел выловить подходящую под требования регламента рыбу. Именно ему достался главный приз — новый снегоход.

Среди женщин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Марина Тен.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бедила команда «Эдельвейс-1». Им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наловить 9,4 килограмма наваги.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шлых лет в номинации «Лига чемпионов» победила команда «Удача» во главе с Михаилом Ханом. Капитан в 2013 году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первого «Рыбацкого биатлона».

Всего было разыграно 15 призовых мест и шесть денежных приз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турнира —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ссоциац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8면에 계속)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한국 외교부가 사할린 동포를 위한 2021년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화상 설명회를 가졌다. 아래 설명회 자료 자세히 소개. 편집부.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2021. 2.16

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

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목적)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주요 내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2. 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5.26. 제정, ‘21.1.1. 시행)

○ 상기 법 제정·시행을 통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대상범위 확대 달성

- **(법적 근거 마련)**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오던 동 사업의 법적 근거마련

※ '15.12월 한일 정부 간 공동으로 시행해온 영주귀국사업의 종료 합의 이후'16년부터 동 사업 한국정부 단독 실시

- **(지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 자녀→ (확대) 사할린동포,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 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II. 주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법 제2조제1항)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배우자)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

- (직계비속)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

※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

□ 상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중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 필요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후 외교부장관의 지원 여부 결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예정

※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은 총 350명

2. 국적 취득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45.8.15.까지 출생) 및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포섭

※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사할린동포 3세, 4세 등)의 경우, 별도 국적법상 요건 충족을 통해 국적 취득 가능(국적판정대상자 미포함)

○ 사할린동포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할린동포(1세)와 그의 자녀(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

- 가족결합 등을 고려하여 **국적판정 신청자의 배우자 간이귀화 신청 前 체류자격 부여(F-1), 배우자 사망·혼인관계 단절 없이 간이귀화(국적법제6조제2항제1호·제2호)*로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 유지 가능**

*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또는 혼인 후 3년 및 국내 거주 1년

【국적부여 방법 및 복수국적 인정 여부】

【현행】			【개선안】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1세	·국적판정	·유지	·영주귀국사할린동포〈사할린동포 1세〉	·국적판정	·유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2세	·국적회복 ·특별귀화 ·간이귀화	·신청 방법 별 상이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	·국적판정 ·(65세이상) 국적회복	·유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간이귀화	·유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 배우자	·간이귀화	·유지 (요건 충족 시)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등에 대한 국적판정지침 제정(내부지침)**

- 신청대상 및 신청장소 확대, 판정절차 및 신청서류의 구체화, 판정심사 및 후속조치 체계화, 국적판정신청자의 배우자 체류허가 신설 등

○ **특정 재외공관(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적판정 신청 허용**

- 국적법령상 국내에서만 신청가능한 국적판정신청을 사할린동포법 제정 취지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재외공관에서 신청가능토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예정

※ 법무부와 외교부간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전산시스템 연계 예정('21. 상반기)

3. 국민임대주택 지원

□ 전국 국민임대주택 단지 중 주거 여건이 양호한 임대주택에 미입주된 공가를 확보하여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

○ 영주귀국 대상자 및 입주 희망지역 확정('21.9~10월 예상) 시 해당 지역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중단하고 공사 확보 예정

○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 및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해 가능한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확보 노력

※ 주요 사할린동포 입주지역 공가현황 ('20.12월말 기준, 추후 변동가능)

지역명	주택면적	공사 호수	비고
인천 남동구	36 ~ 46㎡	314호	인천논현 5단지 인근
안산시	36 ~ 46㎡	125호	안산고향마을 인근

□ 임대주택 단지 배정은 사할린동포별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한 입주 희망지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계획

○ 다만, 특정 지역에 입주 신청이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공가가 부족할 경우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

※ 입주 우선순위는 사할린 한인회 및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 부득이하게 입주 **희망지역에 배정이 어려운 세대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제공**할 계획

□ 임대주택 배정은 보건복지부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에 따라 **2인 1세대(17,700천원/세대 지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 동반가족과 동거 등 3인 이상 거주 희망 시 임대보증금 지원금액 조정(복지부 협의)을 통해 전용면적 40㎡ 이상 주택에 우선 배정 검토

※ 동호수 배정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희망 신청 및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정 예정

□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보건복지부 확보 예산(총 175세대, 약 31억원)으로 총당할 예정이며, 임대료(약 22만원, 수도권 전용 39㎡)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가능

4. 귀국 및 정착 지원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1인당 75,000원 지원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0,000원)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인당 1,400,000원)지원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복지 급여** 지원

○ 아래 법률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를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지자체(시·군·구)로 신청

-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통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미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사할린동포(1세 유자격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수령,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결정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2세)의 경우**

※ 국적 취득 시 사할린동포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 감안,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와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임에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ы брифинга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1 году

Февраль 202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совместно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I. Краткое описание проекта

1. Содержание проекта

Цель: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ы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но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остались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супруг(а),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согласно Ст.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пла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и расходов на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за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и пр. согласно Ст.5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Основа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сновани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ие 26.05.2020,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01.01.2021)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и *достижение расширения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принятие/исполнение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Закона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подготовлено юридическое (законное) основание для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существлявшегося посл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1992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вухсторон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декабре 2015г. 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ект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совмест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с 2016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водит данный проект единолично

- **Расширение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существующи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дети-инвалиды → (расширенны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До 2007 года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мог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ПМЖ, но в связи с расширением проекта с 2008 года в проект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ключены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2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1 поколения, дети-инвалиды)

II.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поддержки

1.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огласно Ст.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лучателями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явля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упруг(а),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Ст.2 п.1 Закона)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ам семей относятся их супруги, вместе переселяющиеся на ПМЖ,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 Супруг(а): только законный супруг(а)

-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прямые потомки до восьмого поколения

Члены сем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лиц,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Граждан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вышеуказанным условиям,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согласно Ст.6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т.3 Указа о вступлении Закона в силу**

-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Ст.4 Указ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бранных в качестве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и получивших уведомление**

домление

2. О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и въезде/выезде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рожденные до 15.08.1945г.) и их дети(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2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ПМЖ,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РК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а супруги граждан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относятся к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натурализации

~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2 поколения, сохраняя сво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хотели бы общности со своей Родиной и т.д.,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го и 2-го поколения относятся к получателям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фактически сохраняют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 Учитывая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емь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супругов), **супругу(е) получател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по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раво на проживание(F-1), если на момент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утем натурализации по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т.6, пункт2, пп.1 и 2) супруг – получатель поддержки жив и не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развода, то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б иностранном гражданстве, возможно сохранение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а**

*Ст.6 п.2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2 года в браке и проживание в стране, либо 3 год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и 1 год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Способ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и признание втор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Сейчас]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Множестве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1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Возвращ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Особ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Отли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 [Изменение]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1 поко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Его ребенок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тарше 65 л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ли супруг(а) его ребенка (2-ое поколение)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условий)

~ **Введение нор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ПМЖ (внутренняя инструкция)**

- Увеличение заявителей и мес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конкретизация процедуры определ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определения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а такж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ебывание супруги(а) заявителя-получател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р.

~ **Разрешение принимать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на ПМЖ,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Ф и страны СНГ)

- Учитывая основные цели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т.д.,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МИД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ям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явление возможно подать только в РК)

*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у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и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Единой цифр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3.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 аренде жиль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лучателям поддержки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с **хорошими жилищ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з **пуст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учателя поддержки и желаемого района заселения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21г.)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жильцов** аренд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районе и зарезервировать незаселен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ить заселение в районы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либо в **близлежащие кварталы**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жильцов** и пр.

* **Данные о пустующи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ях в основных районах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2020г., возможны изменения)**

Название района	Площадь квартиры	кол-во пустующих квартир	Примечание
Инчхон, Намдонг-гу	36-46м2	314	Инчхон, Нонхён
г.Ансан	36-46м2	125	Ансан, Кохянг майл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жилищным кварталам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лять, максимально учитывая **пожелания по заселению** тех, кто **подаст заявление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 Но в случае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пустующих (свободных) квартир** в каком-то определенном районе в связи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аявлений на заселение** в не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ия **порядка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 **Порядок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между РООК и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н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 заселение в желаемый район**,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ах

Распределение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принципу **1 семья из 2 чел.** согласно **нормам оплаты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17,7 млн.вон/1 семь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о

~ В случае желания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ть в одной квартире семье в составе **более 3 чел.**,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приоритет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площадью более 40м²** путе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уммы поддержки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согласовани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 **Заявку о желании проживания в одной квартире подавать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 учетом приоритетной очередности граждан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и имеющих трудности в передвижении и т.д.**

При заселении в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залог на аренду** будет выплачен из **бюдж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сего 175 семей, около 3,1млрд.вон). Возможна оплата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около 220тыс.вон, пристоличные города 39м2) получателям пособия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ища**

4. Репатриация и поддержка устройств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ыплат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обия –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жильц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 размере **75тыс.вон на 1 чел. ежемесячно**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етвёрт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0 трлн вон

Четвёрт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COVID-19 составит 20 трлн вон (18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23 февраля в интервью KBS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литсовет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он Ик Пхё. По его словам, размер четвёрт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ет чуть меньше,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ранее, поскольку для выплат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средства из ранее утверждённых бюджетов. Предприяти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 с учётом годовых продаж и количества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а также помощь време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Однако решение о выплатах всем нуждающимся домохозяйствам пока не принято,- отметил Хон Ик Пхё.

ЮНИСЕФ обеспокоен дефицитом вакцин от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СК

Уровень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полиомиелит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л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лько 84,3% против 97,3% в 2019 году из-за истощения запасов вакцин.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тчёте Детского фонда ООН (ЮНИСЕФ) за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2020 год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пасаются, что запасы продолжают сокращаться, поскольку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полиомиелита не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ЮНИСЕФ, в стране ощущается также дефицит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лечения туберкулёза, а многие жители страны, включая детей, не имеют доступа к качеств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Сложившаяся ситуаци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связана с закрытием Пхеньяном границ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Торговля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сократилась в 2020 году на 11%

Объём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сократи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1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данные Федераль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объём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2020 году составил 42 млн 740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0,8%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в Россию упал на 76,5%, составив 714 тыс. долларов. КНДР экспортировала в Россию в основном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пластмассовые изделия, мебель, осветительные приборы и цемен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импорт из России снизился всего на 6,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42 млн долларов. К числу основ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товар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импорта из России относятся зерновые культуры, минеральное топливо, животные жиры и медицинские товары.

Пункты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откроются 26 февраля

Пункты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откроются 26 февраля в 9 часов утра. Доставка вакцин AstraZeneca с завода компании SK Bioscience в Анд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началась 24 февраля. 1,5 млн доз вакцины для двукратных прививок 750 тыс. человек должны доставить в дистрибьюторский центр в И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туда их распределят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центрам и домам престарелы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 25 февраля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веб-сайт, на котором по имени и номеру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можно будет узнать, есть ли у конкретного человек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Южнокорейцы сократили оплаты банковскими картами за рубежом на 46%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3 февраля, сумма оплат, произведённых южнокорейцами за рубежом с помощью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включая кредитные и дебетовые, составила в 2020 году 10 млрд 31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46,1%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з-за резкого сокращ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и COVID-19.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рубежные поездки совершили лишь 4 млн 28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что на 85,1% меньше показателя 2019 года, когда за рубежом побывали 28 млн 710 тыс. человек.

В 2020 году продажи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сократились на 38%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 февраля, совокупный объём продаж её предприятий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15,5 трлн вон (13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37,7%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94%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а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поскольку из-за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южнокорейцы сократили зарубежные поезд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агазины посетили 10 млн 670 тыс. покупателей,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22% показателя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RKI)

Материалы брифинга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1 год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плата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арендован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и аванса на расходы з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на ПМЖ (17 700 000 вон на 1 семью из 2 чел.)

Оплата расходов на авиабилет (фактическая сумма) и посуду и прочие хозтовары (1 400 000 вон на 1 чел.)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5.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тающихся проживать в России и СНГ

□ Проект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не смогшего посетить Родину по программе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его ребенка (2ое поколение)

△ Позна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ограмма медицинской диагностики и т.д.

□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оект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о посещению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2-3 поколения

~ Поддержка в приглашении и посещении РК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2-3 поко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Ф и странах СНГ,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в связи с переселением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 поколения

III.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1. Годовой план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 получении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и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й о получателях поддержки

~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02.03.2021-30.06.2021) → Отбор заявителей (июль 2021г.) → Запрос у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МИД РК решения о выдаче разреш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ки заявителя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август 2021г.) → МИД: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я о граждана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а такж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заявителя (сентябрь 2021г.)

Проведение брифинга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ктябрь 2021г.)

~ Сообщ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о быте(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д.) в стране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к переселению на ПМЖ граждан на 2021 год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в декабре 2021г. (въезд около 15 групп по 10-40 чел.)

*Организация базы помощи по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К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декабрь 2021г. – февраль 2022г.)

~ Мед.осмотр,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2. План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02.03.2021 – 30.06.2021

*Посл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документы не принимаются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В случае, если сл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факт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либо необходимо выясн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акты,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гражданин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новных данных, копия паспорта и т.д.)

* Документы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оригинале(необходим апостиль) и 1 копия.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должно быть выдан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3 месяца до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 К справкам, выданным в РФ и др.стран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указ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еревод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о переводчике)

~ Общие для всех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1 экз., фотография 1 экз.

*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заполнить в месте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заявителя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ж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факт,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е-

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 1 экз.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супругой(ом),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ли его(ее) супругой(ом) – 1 экз.

Способ и процедур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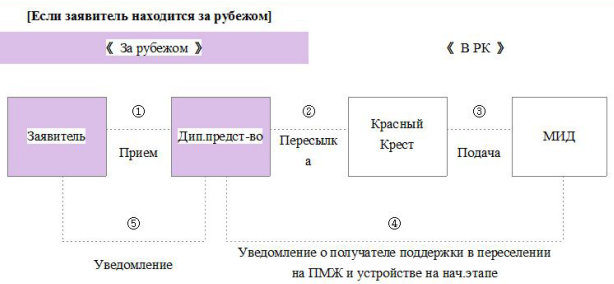
~ В течение периода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заявитель собира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и лично подает их в центр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 месту нахождения(за рубежом, в стране)

※ Документы почтовым отправлением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еобходим документ,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личнос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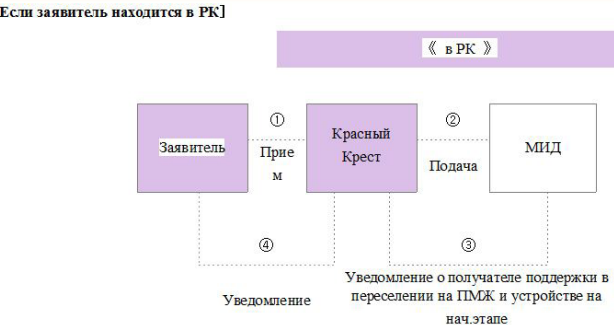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Заявителем)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лично явиться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о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лицах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лично посет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орган и поставить подпись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Доверенным лицом)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Доверенному лиц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1. О причинах представления Заявителя 2. Доверенность от Заявителя 3. Коп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Заявителя 4.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Доверенного лица 5. Офици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связь Доверенного лица с Заявителем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за рубежом: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ет за рубежом,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 РК: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ет в РК,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Внимание! В случае,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умер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с указанной датой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уда, куда подавался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или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IV.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Вопрос: Могут 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о проекту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уже переселялись в РК и вернулись в РФ, снова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мощ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твет: Согласно Ст. 2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казанные лица считаются теми, кто уже получал помощь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ни не могут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снова.

От редакции: Базовый перевод выполнен сотрудник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ополнен журналистами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Это не полная версия перевода. Полная версия будет выложена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еняется телефон для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по 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С 1 март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омер: 8 (4242) 670-391.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будние дни с 9 до 17 часов.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боте с обращениями граждан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ует личные прием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пастъ на прием можно по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письменно или устно изложив свой вопрос.

Праздничные выходные на Сахалине бьют рекорды по активности

Островные гостиницы заполнены, туроператоры ежедневно принимают десятки туристов,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посетили 58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а в фестивале подледн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зафиксир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 Заполняемость в нашем отеле очень высокая, что, конечно, радует,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гостиницы «Мега палас» Юрий Им. — Сегодня бронь расписана до конца марта.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 преподносить новые сюрпризы. Юбилейный 10-й фестиваль подледн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собрал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ля сравнения — в 2020 году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около 600. Всего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рыболов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237 команд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самые удаленные. Не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летели на остр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ак, гости из Мурманска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едлож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Анива-тур». Их доставили к месту рыбалки на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м автобусе и предостави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 В этом году мы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тур к «Сахалинскому льду». За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ую цену в него вошли трансфер к месту ловли, нахождение в комфортном шатр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ыболовных снастей и горячий обед — жареная рыба и уха. Помимо рибей из Мурманска активный отдых с нами провели и другие туристы, которые, судя по их отзывам, остались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нива-тур» Денис Мамыркин.

Новые открытия и массу впечатлений подарили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экскурсии на эко-ферму к пятнистым и северным оленям. Помимо рогатых животных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покормить и погладить кроликов, гусей, индюков и другую живность, а такж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фигурами динозавров, мультперсонажей или домиком хоббит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ариантов отдыха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приезжих гостей остаются снегоходные экскурси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предлагают не только островные туроператоры, но и центр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о стартом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Помимо больш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активностей, в эти выходные многие туристы оценили уникальный вкус блюд из свежепойманной корюшки и наваги,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островны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Наважный fest». Попробовать кулинарные рыбные изыски можно до 28 февраля во всех заведениях-участниках.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отдых на острове может быть не только насыщенным, но и максимально экономным, есл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акции «Твоя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чит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на сайте: gosakhalin.ru.

К проекту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новые партнеры

Теперь карта доступна клиентам «Почта банка» и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Ране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остиг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о выпуске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ы с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м Банком, Газпромбанком и банком Итуруп.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будут подписаны и с другими финансов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было как можно проще получать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без волокиты и неуместной бюрократии. Поэтому с осен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получила банковское приложени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перечислять на нее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пенсию и даже зарплату. При этом выпускается и обслуживается эта карта бесплатно,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Чем больше банков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тем удобнее для жителей — нередко отделения расположены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т дома.

С помощью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ы островитяне старше 70 лет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а люди от 55 — посещают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олучают повышенный кэшбек и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от 1,5 до 10 проц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на карту можно перечисля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и оплачивать с её помощью любые покупки, в том числе — бесконтактным способом.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единой картой с банковским приложением пользуются 1300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ть её можно, написав заявление в банке.

Агропарк сформирует более 700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агропарка представят на форуме «Агроиндустрия.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грарного бизнеса,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0 февраля.

— Мы хорошо помним, как в начале пандемии возник дефицит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Обострился вопро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гиона. Чтобы на столах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да были свежи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продукты,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ить современные фермы, теплицы и склады, налаживать переработку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выпуск кормов, удобрений и упаковки, а также улучшать логистику для поставок продуктов извне и внутри региона. И работать в этой сфере будут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склады в регионе построены в основном в период 1955-1980 годов и уже давно не отвечают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Не хватает холоди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хранилищ для овощей, картофеля. Часть продукции портится, а покупатели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нехваткой тех или иных видов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можно, созда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с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м центр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ят на форуме. Его реализацией занимается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гропарк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строй в 2023 году.

—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явятся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площадью 1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ринять до 15 тысяч тонн продукции. Важно, что здесь будут созданы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хран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кардинально сократить потери продукции и сохранить ее качество,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Вдови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склад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лощадью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местятся пищевые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Здесь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сможет наладить выпуск качественной мясной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бакалеи, консервов,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огистическими услугам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ые п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региона.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танет торгово-выста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1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Ему отведена ро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а зона торговли для остро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фудкорт с точками пит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мися на местной кухне, а также площадка дл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выставок и ярмарок.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ой очереди — третий квартал 2024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удет создано 72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2023-2027 годах вклад в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составит 6,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бил рекорд по посещаемости комплекса

Более 5,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Так, 21 февраля отмече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с момента развития комплекса с начала 2000 годов — 5 800 человек. Всего же в этот день зафиксировано 36 505 проходов через турникет.

— Сегодня отличная погода, катаюсь уже полдня с друзьями, настроение прекрасное! Всё супер, кроме длинных очередей! — смеется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Рахманов.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изошло благодаря в том числе открытию горы Красная, где каждый может найти для себя трассу по душе и уровню сложност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горе открыты три склона с рабочими названиями А1 (зелёная), А2 (чёрная) и А3 (синя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десь нет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лекса каждую неделю подготавливают трассы, чтобы наши гости могли кататься на выходных в своё удовольствие и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 резюмир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лександр Кокшаров. — Помимо этого,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освещение склона «Юг»,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туристы 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дольше проводить времени на гор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перь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можно кататься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серпантине, Западе и Юге.

— Уже давно собирался опробовать трассы Красной, но вот только сегодня предоста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 целом понравилось,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разнообразия, новые ощущения! Трассы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Покатался на самой протяжённой «зеленой» и «синей», а на «чёрную» пока мне рановато,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Артём Гаврилов.

Напомним, на горе есть шикарная фрирайд-зона с хорошим уклоном, предназначенна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ка-

таться вне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трасс и в лесном массив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овести выходные на склонах, получить заряд энергии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этом году получает 77 новых санитарных машин

19 февраля в районы отправили первую партию из 6 спецавтомобилей. Ключи от «УАЗ-Патриот» вруч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центральных больниц Корсак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Без помощи санитар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е обходится ни один день в больнице. Привезти лекарства, доставить врача к больному — за день такая машина наматывает десятки километров. Учитывая экстренный характер работы, износ автомобиля может наступить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 Если пациент не экстренный,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скорой помощи, а ну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плановую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маломоби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санитарный транспорт очень выручает. Протяженность дорог в районе большая, все машины при деле, — рассказала и.о.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Углегорской ЦРБ Анна Степанова.

Новые санитарные машины — полноприводные,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и в условиях бездорожья. Потребность при распределении транспорта оценивалась по состоянию и степени износа автопарка медучреждений.

— Сегодня мы отправляем в больницы первую партию спецмашин. Их получат районы,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остро нуждаются в транспорте. Помощь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очень ощутима, автомобили достанутся все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оставка транспор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регионе открывают ФАПы и ремонтируют пом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и идею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под инвесткво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орабатывалась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 накануне этот вопрос обсудили зампред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Василий Соколов.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квоты в обмен на инвестиции» — такие аукционы проводились в прошлом —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на Шикотане, а также в Томарин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ектор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вот был смещен на поддерж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удов.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рактик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весткво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лиде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объемам береговой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заводов позволит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поставок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 снизит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экспорта в КНР.

— Береговая переработка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защитить рыбо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т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внешнем рынке, но и развивать прибрежные территор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к районам промысла, — подчеркнул Антон Зайцев.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уже доложил об этой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у РФ. Идея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В дальнейш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планируем внести в нормативную базу, — сказал Василий Соколов.

Также зампред Антон Зайцев поблагодарил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за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связанного с добычей морского ежа. Компани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е эту деятельность, сталкивались с проблемой — в разрешении на вылов морепродукта нельзя было указать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е маломерное судно. А без него вести промысел зачастую невозможно. Нестыковка всплывала при проверке документов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Компани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латить крупные штрафы.

О проблем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анее сообщали в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В результате ведомство внесло изменения в «справочник орудий лова». Теперь в перечне появилось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е маломерное судно», и в разрешении на вылов морепродукта его можно указать. Изменения действуют с 17 февраля.

Сегодня регион примет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инициатором которой выступило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уют глав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отраслевые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ученые и эксперт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из России, Японии, Кореи, США и Канады.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динамики численности, состояния запасов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Также для региона важна инициатива — разрешить рыбакам-любителям продавать свои улов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участников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Готовятся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 о любительском рыболовств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3면의 계속)

※ [참고]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②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

③ (장애인복지법)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5. [참고] 현지 잔류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

□ 사할린동포 1세* 일시모국방문 사업

-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
- ※ 사할린동포가 동 사업 참여 경험 없이 사망 시 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 대상 지원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친지방문,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지원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에 따른 현지 가족과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러시아·CIS 지역 거주 2~3세 가족을 국내로 초청

Ⅲ. 진행 일정

1. 연간 계획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결정

- 신청 접수('21.3.1.-6.30.)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안) 선정('21.7.) → 대한적십자사, 외교부에 대상자(안) 전달 및 승인 요청('21.8.) → 외교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보('21.9.)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21.10. 예정)

- 2021년도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내역 및 국내생활 관련 정보(임대주택 등) 안내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 '21.12월중 영주귀국 실시(약 15회 / 회차별 약 10~40명 입국)
- ※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21.12.-'22.2.)
- △건강검진, △정착 지원, △국적판정 신청 및 취득취득

구분	일정(안)	내용
사전준비	2.16.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3.1.~6.30.	○ 신청 접수
	7월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안) 선정
	8월	○ 대상자(안) 승인 요청(대한적십자사→외교부)
	9월	○ 대상자 결정·통보(외교부)
	10월	○ 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
영주귀국	12월	○ 영주귀국
사후관리	12월	○ 건강검진 실시
	12월~'22.2월	○ 지원캠프 운영
	'22.1월	○ 정착 지원, 국적판정 신청 및 취득(관계부처)

2.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기간: '21.3.1.(월) - 6.30.(수) ※ 동 기간 이후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제출된 서류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제출 요청 가능

※ 증명서는 원본(아포스티유 발급 필요)과 사본 각 1부 제출, (*혼인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

※ 러시아 등 국외 발급 증명서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요(번역기관·번역자 정보 기재)

① 공통서류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부, 사진 1매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신청 접수처에서 작성 가능

② 신청자격별 구분에 따른 제출 필요 서류

- 사할린동포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반가족인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은 신청 접수기간 중 신청서류를 구비, 소재지(국외/국내)에 따른 접수처(재외공관/대한적십자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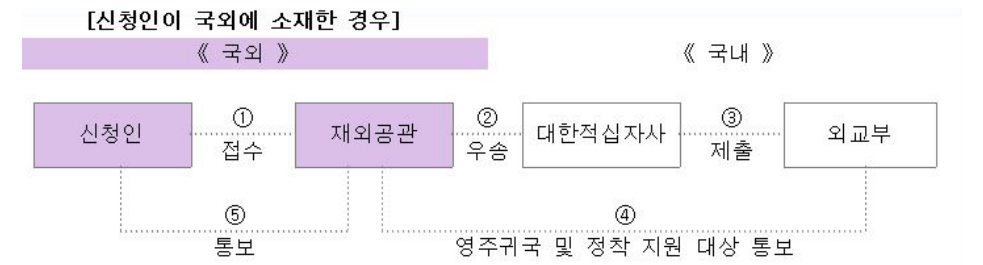
※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 지참 필요

- (본인 신청) 신청인 본인의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신청 시 사할린동포의 직접 방문 및 서명 필요

- (대리인 신청) 건강상 이유 등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를 지참한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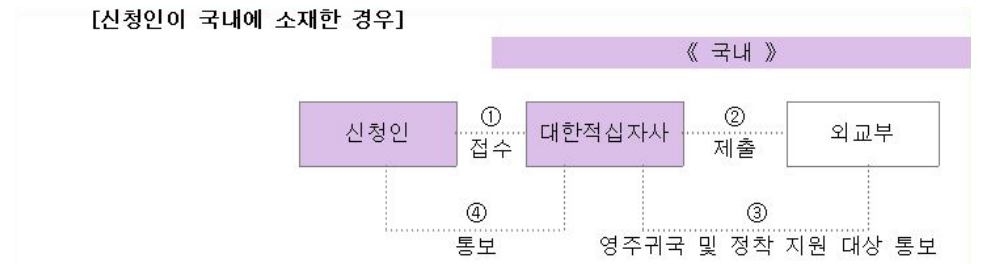
· ① 대리 신청 사유서, ② 신청인의 위임장,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⑤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서류

※ 대리 신청 사유서 : 신청인의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국외 신청) 신청인 국외 소재 시,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 사할린동포는 국내, 그 동반가족은 국외에 소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 신청 시, 재외공관의 접수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신청 확인·서명 요청 예정



○ (국내 신청) 신청인 국내 소재 시,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후 유의사항

○ (사할린동포 사망 시) 신청을 완료한 동반가족은 신청 후 사할린동포 사망 시,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사망진단서 즉시 제출 필요

※ 사망진단서는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제출

○ (영주귀국)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동 사실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신청 연도에 반드시 영주귀국 필요

○ (지원 자격 박탈) △신청서류 위조, △사할린동포 사망진단서 포함 필요서류 누락 등 신청 부적격 사유가 추후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 즉시 중단

※ 관련법에 따른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성 불배제

IV. 문의사항

Q.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 사할린동포법상 동반가족의 범위에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호상 ‘동반가족’의 정의 관련, △동반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를 전제하는 개념이고, △사할린동포 사후에도 동반가족을 지원한다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고려, 상기와 같이 해석

※ '동반'의 의미 :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

Q.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국적 유지가 가능한지?

☞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는 국적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의 배우자는 각각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①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혼인한 후 3년이 경과되었으며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사망,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복수국적 유지 불가

☞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반가족(사할린동포 3, 4세 등)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후 복수국적 유지 곤란

Q. 기존에 사할린동포와 함께 장애자녀가 영주귀국한 경우, 직계비속 1명이 추가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것인지?

☞ 기존에 영주귀국한 장애자녀는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에 포함되며,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계비속 1명의 추가 신청 자격 불인정

Q.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할린동포가 신청서에 서명·동의한 직계비속 1명만을 선정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직계비속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전에 사할린동포의 의사 확인한 이후 신청 권고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자원봉사자들 '#우리 함께'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의 집으로 식자재와 약품을 배달하고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사를 방문하며, 직접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약을 구입해주고,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청년선도센터의 알렉 고르토타노브 소장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 - 독거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 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희망자는 누구든 이런 상부상조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사이트 <https://volunteer.yuzhno-sakh.ru/>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ют набирать волонтеров

Волонт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акции #Мы-Вместе продолжают помогать горожанам. Волонтеры доставляют на дом больным, пожилым людям, инвалидам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посещают поликлиники с целью получить рецепт и купить лекарства в аптеке для тех, кто не может само-

стоятельно этого сделать, помогают решить бытовые вопросы.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лег Гортованов, за помощью обращаются разные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те, кто оказал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С каждым обратившим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решают вопросы.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акции взаимопомощ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йти на сайт <https://volunteer.yuzhno-sakh.ru/> и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코르사코프의 장애인들에게 비누 만드는 법 가르쳐

코르사코프의 노비코보마을에서 장애인들에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공예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주민들은 비누공예 기술을 익혔는데 지역의 이러한 강습은 처음이 아니며, 강습에 성인부터 학생들까지 초대하고 있다. 이 창작 활동교실을 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기념이 될 만한 비누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주 보조금 지원 덕에 주최 측은 비누 원료와 염료, 향료, 비누틀을 구입할 수 있었다. 수업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명절 2월23일, 3월8일을 위한 흥미로운 선물을 만들었다. 비누공예 초보자들이 스스로 세밀하게 묘사한 동물의 모양, 특이한 꽃, 비누 모양 등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장애를 가진 시민 지원센터의 학생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취미를 익히고 있다. '솔닉쉬코(햇님)' 7호 유치원이 레고 블럭 8세트를 선물했다. 이제는 장애아들이 로봇공학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Корсакова научили варить мыл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селе Новиково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бучили простому и интересному ремеслу.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освоили навыки изготовления мыла. Такой урок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проводят не в первый раз — на занятие приглашают как взрослых, так и школьников.

Творче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организовали активисты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мощи гражданам с ОВЗ. Посетителей научили быстро и просто создавать праздничное мыло разных форм.

Благодаря средствам областной субсид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купили мыльную основу, красители и ароматизаторы, а также запас форм. И на уроке гости с интересом изготавливали подарки к пред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ам — 23 февраля и 8 марта. Теперь у начинающих мыловаров есть чем удивить близких: он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здали детализированных животных, необычные цветы и оригинальные фигурки.

Чтобы воспитанники центра помощи гражданам с ОВЗ освоили еще одно интересное хобби, детский сад № 7 «Солнышко» передал им восемь конструкторов Lego. Теперь дети-инвалиды смогут заняться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